



# 사랑은 만병통치약

강길전(‘지금여기’ 편집위원, 충남대 의대 교수)

부정적 마음과 긍정적 마음의 심박동변이도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양자 생물학자 글렌라이인은 심박동 변이도 검사를 이용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연습하면 나쁜 모양의 변이도가 점차 좋은 방향으로 교정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사랑과 감사의 실제 파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편집자 주).

‘새로운 의학’에서는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라 말한다. ‘새로운 의학’이란 현대의학의 3차원적인 의학에서 벗어나 의학을 양자 물리학의 양자장(量子場) 이론으로 설명한 4차원적 의학을 말한다. 양자장(量子場) 이론이란 존재하는 물질의 배후에는 항상 에너지장을 동반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인체는 장기, 조직, 세포, 분자, 원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 등으로 환원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고유의 에너지장(場)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육체는 육체장, 장기는 장기장, 조직은 조직장, 세포는 세포장, 분자는 분자장, 원자는 원자장, 전자는 전자장, 양성자는 양성자장, 중성자는 중성자장, 그리고 쿼크는 쿼크장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마음도 양자장(quantum field)으로 구성된 물리적 구조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양자 생물학자 글렌 라인(Glen Rein)은 〈양자 생물학(Quantum Biology)〉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마음은 초양자장(superquantum field)이라는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고, 프린스턴 대학의 공대교수 로버트 얀(Robert Jahn)과 브랜다 둔(Brenda Dunne) 교수 등도 마음은 물리적 파동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단지 그 파동의 정체가 너무 미세하여 그 존재를 규명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의학, 즉 양자의학(量子醫學)에서는 마음을 파동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의 존재마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판국에 마음이 파동이라고 말하면 매우 황당하게 들리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이 파동이기 때문에 마음의 종류에 따라 그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다. 예를 들면 분노, 질투, 슬픔, 두려움,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파동 진동수와 명랑한 마음, 정직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모든 사람과 화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등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의 진동수는 서로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파동이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 대역은 서로 공명하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마음의 주파수는 첫째, 음식물 속의 중금속과 공명하여 중금속을 몸 속에 침착시키는 작용을 하고 둘째, 병의를 끌어들이어 자신의 마음속

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주시키는 작용을 하며 셋째 뇌의 자율신경,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엔케팔린 및 멜라토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넷째, 인체에 말썽을 부리지 않고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휴면 상태의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진균 및 세균 등을 활성화 시키는 작용을 하며 다섯째, 인체의 세포 구성구석까지 마음의 부정적 파동이 파급되어 세포의 기능을 억제한다.

부정적 마음의 주파수와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진균 및 세균 등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조해 하는 마음은 헤르페스 타입 1과 공명하여 이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고, 두려움이나 불신감의 마음은 헤르페스 타입 2와 공명하여 이 바이러스에 잘 감염된다. 이외에도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는 마음은 클라미디아와, 애대우는 마음은 사이토메가로바이러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칸디다 등과 공명하여 이들에 잘 감염된다. 더 무서운 것은 이와 같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 사람의 유전자 속에 휴면 상태에 있는 암유전자(oncogene)와 공명하여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미생물의 활성화는 혈액 중에 토폴복산 B2를 증가시켜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혈액순환 장애는 실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왜 부정적인 마음의 주파수가 중금속과 공명하는지 그리고 왜 초조해 하는 마음은 헤르페스 타입 1과 공명하는지에 대한 현대과학적 이유 같은 것은 알 수 없다. 단지 일본 사람들이 부정적 마음과 중금속의 주파수가 어떻게 공명하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바이러스, 진균 및 세균 등의 주파수와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관심 있게 연구한 결과 그렇게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오무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오링 테스트'를 개발하였고, 오링 테스트에 익숙한 일본 사람들은 왜 오링 테스트를 하면 잘 맞아 떨어지는가를 궁금하게 여겼다. 결국 그들이 찾아낸 해답은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속의 '초의식'에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의 결과는 손가락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혹은 근육 테스트를 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의 초

의식에 물어서 오링 테스트나 근육 테스트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의식'에게 물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남에게 오링 테스트 혹은 근육 테스트를 하는 경우 테스트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팬들럼 같은 것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초의식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묻는 것이다. 질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초의식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야 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답이 YES이면 팬들럼의 추는 시계의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대답이 NO이면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식으로 알고 싶은 모든 것, 수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많은 연습에 의하여 어느 경지에 이르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 중에서 '불안'은 '망간'의 주파수와 공명하고, '슬픔'은 '아연'의 주파수와 공명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은 무슨 바이러스의 주파수와 공명하고 또 어떤 감정은 무슨 세균의 주파수와 공명하는지를 알아 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 마음의 과동은 인체의 각 조직 및 장기 중에서 비슷한 주파수와 공명하여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여움은 간, 담도 및 눈 등과 공명하여 간 질환, 담도 질환, 눈 질환을, 걱정은 폐, 대장 및 코 등과 공명하여 폐 질환, 대장 질환 및 코 질환을, 지나친 기쁨은 위, 비장 및 입술 등과 공명하여 심장 질환, 소장 질환 및 혀 질환을, 그리고 공포는 순환 계통, 신장, 방광 및 귀 등과 공명하여 혈액순환 장애, 신 질환, 방광 질환 및 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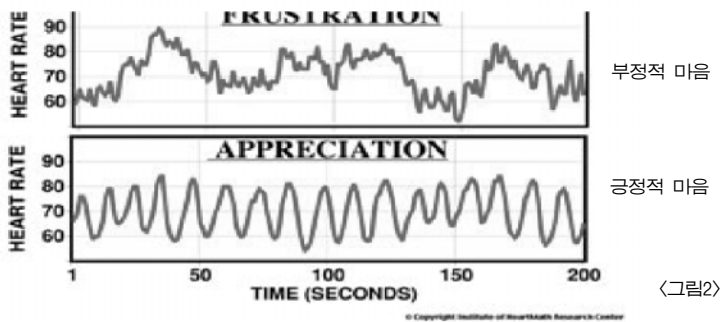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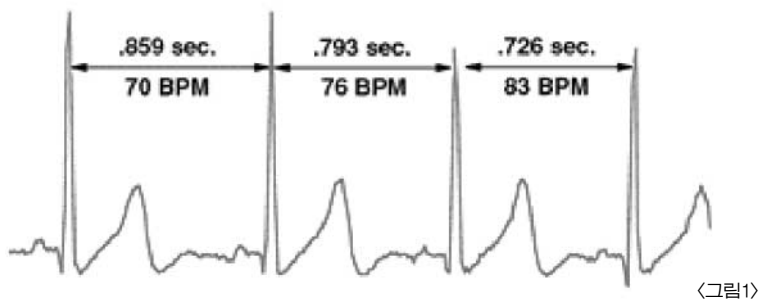
그리고 부정적 마음의 주파수는 뇌의 자율신경,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엔케팔린 및 멜라토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우울증, 여러 가지 신경증, 폐쇄공포증, 자율신경실조증, 위장신경증, 만성피로증후군 및 갱년기장애 등을 일으켜 뇌와 마음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사실 마음을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별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마음의 의미가 증대되면서 마음을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었다. 부정적 마음을 측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등에서 주로 측정하는 심박동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등에서 주로 측정하는 초상심리학적 방법(psychic kinesiology)이다.

심박동변이도란 심장박동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측정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당 박동수가 일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특수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심박동변이도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심박동변이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상심리학적 방법이란 일본의 미야자키 가케이가 개발한 방법인데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중심부에 초의식(superconsciousness)이란 부분이 자리잡고 있



어 초상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펜듈럼(진동추)을 쥐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 각자의 초의식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던진다. 만약 환자의 마음에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면 펜듈럼이 시계의 왼쪽 방향으로 돌고, 환자의 마음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면 시계의 오른쪽으로 돌아라 하고 자신의 마음 속에 명령을 내린다. 한참 후에 펜듈럼이 시계의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환자는 부정적인 마음이 많다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부정적 마음이 많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이런 마음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인간이 갖는 긍정적인 마음은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마음은 ‘감사합니다’이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감동에 가까운 것이라면 그 효과는 매우 커 심지어는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 속에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50회 이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감사에 대한 명상을 한다. 감사에 대한 명상이란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 중에서 감사했던 일을 하나만 마음 속에 떠올리면서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는 명상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 대하여 조건 없이 사랑을 줄 때와 같은 감정을 확장하는 연습을 말한다. 만약 자식을 가진 여성이라면 사랑의 마음을 명상하는 것은 매우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만약 남성이라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 다음 눈을 감고 남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과거의 경험 중에서 하나만 마음 속으로 떠올린 다음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면 된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라면 성교 중에 절정에 도달했을 때의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명상하여도 좋은 방법이 된다. 실제로 미국의 양자생물학자 글렌 라인(Glen Rein)은 심박동변이도 검사를 이용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연습하면 나쁜 모양의 변이도가 좋은 방향으로 교정됨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송과체(松果體)를 활성화하는 명상법이다.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송과체는 우주에너지와 공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약 30분 동안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 다음 눈을 감고 명상으로 들어가서 우주에너지가 머리의 두정부를 통하여 송과체를 통과하는 이미지를 명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 빛이 최고이듯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우주에너지라는 빛을 마음에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여 부정적 마음이 긍정적 마음으로 바뀌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정적 마음은 정신과적 질환 및 수많은 육체적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 류마티즘 등을 위시하여 심지어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므로 만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약으로 치료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은 결국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이다.

지금까지 첨단 물리학인 양자장 이론으로 해석한 양자의학(量子醫學)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까지 말하였다. 혹자는 이와 같은 이론을 미신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이고 혹자는 사이비 의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런 사람은 그 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부디 웅색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 시대의 새 의학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 저자 : 강길전

196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군의관으로 군에서 복무한 후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 및 산부인과 수련의 과정을 이수.

그리고 한강 성심병원에서 산부인과 부과장으로 2년간 재직한 다음 한양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4년간 근무하였고 1983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이 기간 동안 미국 Ohio 주립대학병원 산부인과 불임센터에서 1년간 연수 교육을 받았고 또한 "여성 생식 의학"이라는 책을 한 권 발간.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전문 분야인 불임 및 여성생식기 내분비에 전념하였고, 1992년부터 뜻하는 바 있어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

우리 조상들이 말해온 정. 기. 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연하게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그 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양자의학"출간 준비 중.